우리의 자랑

**<예레미야 9장 23-24절>**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0-33절>**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자랑’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을 뜻합니다. 요즘에 저희 둘째 아이가 영어로 색깔을 말하는 데 재미들렸습니다. 저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투브 동영상을 보고 혼자 배운 것입니다. 빨간색 물건을 보면 ‘레드’라고 소리치는데, 제 귀엔 ‘왜’로 들립니다. 초록색을 보면 ‘그린’이라 하는데, 그 아이 발음으로는 ‘그이’입니다. 제일 반갑게 소리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만나면 야오! 야오! 얼마나 신나서 외쳐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에 대해 뭔가를 안다는 걸 뽐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며 삽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잘 하는 것, 자기가 가진 좋은 것… 남 눈치 보지 않고 천연스레 뽐내며 살아가지요. 어른들의 경우는 어떨까? 어른들은 자랑하지 않는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잘 하는 것,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뽐내며 살지 않는가?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 역시 자랑하고 뽐내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 일을 좀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수행할 뿐이지요. 자랑하지 않는 듯 자랑하기, 자기를 낮추는 듯 자기를 높이기… 자랑하는 일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의 자랑이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어른이 돼서도 유치한 것들을 자랑하려다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자랑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없을까? 자랑하지 말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남보다 뭘 더 많이 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스스로 용맹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남보다 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스스로 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남보다 좋은 걸 더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듯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자랑꺼리가 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치 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은밀히 우상을 섬기고, 서로간에 거짓과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절대 나라가 망할 리 없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부함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잘못 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자랑거리가 되는가?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자랑거리는 한 마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저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겪어 보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얼마간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관념 속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여 부리려 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욕망과 관념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를 일컬어 ‘계시’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안다는 뜻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점차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셋>인데, 이것은 자기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공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미쉬팟>은 하나님의 판결이나 결정이 올바름을 뜻하고,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츠다카>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르게 돕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판결하고 결정하시는 분, 하지만 동시에, 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곤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분의 신적인 지혜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르게 돕고 살리시고자 땅의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주십니다.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그 일을 그분은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두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알고, 우리 역시 그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삶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나같은 죄인에게 한결같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역시 신실치 못한 내 이웃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사랑을 베풂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의미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 주장하며 자기 자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곤 하지만, 진정 누가 옳으며 칭찬받을 만한지에 대한 결론은 그 안에서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 그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지를 알고, 이를 성실히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일을 행하는 중에 설령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해도, 그리 이상히 여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고난을 겪으셨으니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행동의 결과 이 땅에서 얻는 보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는 그 담대한 믿음과 소망, 그것이 우리 자랑의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교회로부터 매우 속상한 일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간 바울을 비난하며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깍아내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는데, 일부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에 속상해하며 다소 강경한 어조로 써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대해서라면 나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하며 그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이 지셨던 ‘약함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만은 이 말에 담긴 내 마음을 아시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자신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일 하나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을 때, 왕의 신하가 그를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뭐 이런 시덥잖은 얘기를 덧붙여놓았나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사도성을 피력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면,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킬 만한 어떤 뽀대나는 체험을 얘기해야지,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몰래 도망쳐나온 그 일이란 말인가? 여러분, 바울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십사 년 전 낙원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들은 그의 자랑목록에서 제해집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

바울이 말하는 ‘약함’ 혹은 ‘약한 것들’이란, 단순히 그가 앓고 있던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나약하고 없어 보이는 그 모습들을 포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은 그런 연약함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인가? 있지요!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고난과 약함의 실존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겪는 고난 속에서, 그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가 기꺼이 깨어질 때 그 안에서 쏟아져나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4:7)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언급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 때의 일이 그에겐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려 했던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됐던 그 경험,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위기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스릴넘치던 경험, 남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를만한 대단한 경험은 아닐지 몰라도, 그 순간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의 그 고난과 약함 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살다보면 어려운 일을 맞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해주시면 좋을텐데 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겠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가 복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제 가장 생생히 느끼십니까? 어떤 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라는 대로 잘 되게 하셨다는 얘기,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 얘기 들을 땐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인내하는 분을 볼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려 애쓰는 분을 볼 때, 손해와 희생이 예상됨에도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드는 분을 볼 때,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히 느끼고, 때때로 그 모습에 혼자 감격하여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자랑은 내가 하는 일이 남보다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는 그 자부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증거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